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2. 4.(수)

## 조달청,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전반에 AI 대전환

- 공공조달을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6대 전략과제로 전 과정 혁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4일(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① 유망 AI 제품·서비스 발굴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AI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현안 해결형 AI 솔루션을 적극 발굴한다.

## ② AI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AI 적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 우대와 수익계약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구매를 지원한다.

쇼핑몰(MAS) 등록 시 납품실적 면제, 서류 제출 간소화,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등 AI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 ③ AI 제품 전문 심사 제도 마련

‘진짜 AI 제품’이 공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 특성에 맞는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제품·우수제품 지정 시 AI 전용 심사 트랙을 신설하고, AI 전문 평가위원을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④ 국내외 판로 지원을 통한 AI 제품 공공구매 확대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등 주요 행사를 통해 우수 AI 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 시 우대,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AI 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 ⑤ 공공조달 AI Agent 도입

입찰, 평가, 가격관리, 계약관리 등 조달 업무 전반에 AI Agent를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제안서 평가, 공사비 검토, 관급자재 수급관리 등 주요 업무에 AI 분석을 적용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 ⑥ 공공조달 AI 전환 기반 마련

민간,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AI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포럼 등을 통해 공공조달 AX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초기 수요와 실증 기회가 핵심”이라며, “2026년부터 공공조달이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조직 전반의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조달개혁과	책임자	과 장	문호림 (042-724-6378)
		담당자	사무관	박재양 (042-724-6380)

